

明人 詩話의 陶淵明 詩에 관한 評語 研究*

崔 雄 赫**

<目次>

I. 머리말	III. 陶淵明 詩의 作詩法에 관한 論議
II. 宋人의 陶淵明 詩 批評에 대한 論議	IV. 陶淵明 詩의 文體에 관한 論議
	V. 맺음말

I. 머리말

明代에 저술된 詩話는 직접 시화라고 명명한 것만도 37부나 되며, 시화의 체제를 갖춘 것까지 포함하면 총 157부에 달한다.¹⁾ 郭紹虞가 《宋詩話考》에서 다룬 송시화가 총 139부임에 비추어²⁾, 그 수량에 있어 宋代를 능가한다. 이처럼 대량으로 시화가 창작된 까닭은 格調와 反格調, 復古와 反復古 그리고 擬古와 反擬古의 文學思潮가 대립되는 가운데 明人들이 시화를 자신들의 詩學理論을 펼치는 場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郭紹虞는 “以資閑談(한담 거리를 제공함)”을 위주로 하던 北宋 시화가 南宋에 들어와 “以論辭爲主(詩語를 논하는 것을 위주로 함)”의 경향을 보였으며, 明代에 들어서는 “論文談藝的嚴肅著作(문예를 논의하는 엄숙한 저작)”이 되었다고 규정하였다.³⁾ 이는 곧 明詩話가 체계화되고 이론화되어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蔡鎮楚, 《中國詩話史》, 湖南文藝出版社, 1988, 138쪽.

2) 郭紹虞, 《宋詩話考》 目錄, 中華書局, 1985.

전문적인 詩歌 批評書로 탈바꿈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명시화는 송시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陶淵明에 관한 논의만을 놓고 볼 때, 송시화에서 주로 다루어진 出處와 歸隱 등 그의 인생 행로에 관한 논의와 平淡과 自然으로 귀결되는 그의 詩風에 관한 논의가 명시화에서도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또한, 대다수 명시화의 著作 目的은 學詩者를 위하여 詩歌의 創作方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唐詩를 詩法으로 삼았던 明人들은 도연명의 시를 唐詩의 徵兆라고까지 인식하였고,⁴⁾ 이에 그 造句法과 造字法 등 作詩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명시화 작가들은 도연명의 平淡 詩風이 그의 인격이나 창작태도 뿐만 아니라 詩語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명시화의 특성에 주목하여, 명시화에 수록된 도연명 시에 관한 評語, 특히 조구법과 조자법 등 작시법에 관한 평어들을 분석함으로써 명인들이 도연명의 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였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宋人의 陶淵明 詩 批評에 대한 論議

平淡한 風格이 作詩의 이상적인 境界라고 여겼던 宋人들은 도연명의 시를 그 典型으로 내세우며 칭송하였다.⁵⁾

안배하지 않았고, 가슴 속을 자연스레 드러내었다.(不待安排, 胸中自然流

3) 丁福保, 《清詩話(上)·前言》, 上海古籍出版社, 1978, 3쪽.

4) “惟陶靖節不宗古體, 不習新語, 而真率自然, 則自爲一源也, 然已兆唐體矣.” (許學夷, 《詩源歸體》六)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陶淵明資料彙編》上, 中華書局, 2004, 153쪽.)

5) 崔雄赫, <宋人 詩話의 陶淵明과 그의 詩에 관한 評語 研究>, 《中國學研究》 57, 2011, 참조.

出.)⁶⁾ (朱熹, 《朱子文集》)

본 바에 따라 적어내어 시를 이루었다. 꽃을 보면 꽃을 말하고,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를 말하였으니, 또한 조금도 작위가 없다.(隨其所見, 指點成詩. 見花卽道花, 遇竹卽說竹, 更無一毫作爲.)⁷⁾ (施德操, 《北窗炙輿錄》)

사정에 절실하나, 꾸미지 않았을 따름이다.(切於事情, 但不文耳.)⁸⁾ (陳師道, 《後山詩話》)

번거롭게 먹줄을 쳐서 깎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맞는다.(不煩繩削而自合.)⁹⁾ (黃庭堅, <題意可詩後>)

도연명 시의 평담함은 자연스러움에서 비롯되었다.(淵明詩平淡, 出於自然.)¹⁰⁾ (朱熹, 《朱子語類》)

위와 같이 송인들은 도연명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創作態度와 造句法을 지적하면서, 이로부터 도연명 시의 平淡 風格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명대에 들어와서도 이 같은 인식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도연명의 시는 맑고 깨끗하며 순수하니, 자연스러움에서 비롯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陶淵明詩沖澹深粹, 出於自然, 人皆知之.)¹¹⁾ (安磐, 《頤山詩話》)

위와 같은 安磐의 말을 통하여, 도연명 시가 평담한 풍격을 지녔다고 평가하는 것이 명인들의 공통된 견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명인들의 평어를 통하여 확인된다.

오직 도연명의 오언시가 먼 후세에 이르는 평담의 유파를 열었다.(惟陶

6) 陶澍, 《陶靖節全集注·諸家評陶彙集》, 世界書局, 1974, 130쪽.
 7)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56쪽.
 8) 何文煥, 《歷代詩話》, 藝文印書館, 1974, 187쪽.
 9) 黃庭堅, 《豫章先生文集》二十六(《四部叢刊影印本》49), 法仁文化社, 1989, 295-296쪽.
 10)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74쪽.
 11) 같은 책, 152쪽.

之五言, 開千古平淡之宗.)¹²⁾ (胡應麟, 《詩藪》 卷二)

위응물이 비록 충담하지만, 결국 도연명보다 한 걸음 뒤진다.(韋應物雖冲淡, 終輸陶一着.)¹³⁾ (盧衍仁, 《古今詩話選雋》 卷上)

도선생의 문집을 보면, 곧 그 평담 온화하고 맑고 깨끗하며 권세에 유연했던 것 말고도 가난에 얽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즐거움으로 여겼다.(觀陶子之集, 則其平淡冲和, 瀟灑脫落, 悠然勢分之外, 非獨不困于窮, 而直以窮爲娛.)¹⁴⁾ (歸有光, <陶庵記>)

이처럼 명인들 역시 도연명이 평담 詩風의 開祖이며, 시의 평담함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칭송하였다. 나아가 명인들은 도연명 시의 평담을 보다 구체적이고 근원적으로 궁구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黃文煥은 “고금을 통하여 도연명을 추존하는데, 모두 평담으로 귀결된다. 평담으로 도연명을 개괄하면, 도연명은 볼 수가 없다.(古今尊陶, 統歸平淡. 以平淡概陶, 陶不得見也.)”¹⁵⁾라고 하여, 평담이란 한마디 말로 도연명의 시를 재단하여서는 그 참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고 경계하였다. 상당수 명인들이 황문환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에 송인들이 “不文”이나 “不煩繩削而自合” 등을 도연명 시의 修辭 技巧로 내세우고, 이를 평담 풍격의 動因이라고 규정한 것은 피상적이며 편협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도연명 시의 담박함은 먹줄을 대어 깎아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자연스러운 곳으로 깎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담박한 묘미는 보이지만, 깎아낸 흔적은 볼 수 없다.(陶詩淡, 不是無繩削, 但繩削到自然處, 故見其淡之妙, 不見其削之迹.)¹⁶⁾ (王圻, 《稗史》)

黃庭堅이 “不煩繩削而自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수식을 가하지 않

12) 같은 책, 162쪽.

13) 같은 책, 174쪽.

14) 같은 책, 141-142쪽.

15) 같은 책, 152쪽.

16) 陶澍, 앞의 책, 135쪽.

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식을 가하여 그 자취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
고 반박하고, 그럼에도 도리어 담박한 묘미는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陳師道는 “도연명의 시는 사정에 절실하나 다만 꾸미지 않았을 따름이
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귀원전거>에서 “어렵풋이
저 멀리 마을에서, 모락모락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른다. 후미진 골목 안에선
개가 짖고, 뽕나무 꼭대기에선 닭이 운다.”라고 하였는데, 蘇軾은 “마치 큰
목수가 도끼를 부리는데 도끼 자국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음
주> 첫째 시에서 “쇠함과 성함은 정해진 바 없으니, 둘이 번갈아 함께 한
다.”라고 하였는데, 黃庭堅은 “서한의 글과 비슷하다.”라고 하였다. <음주>
다섯째 시에서 “마을에 몇 집을 엮었으나, 수레와 말의 시끄러움이 없다.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이 멀리 있으니 사는 곳도 절
로 외지다오.”라고 하였는데, 王安石은 “시인이 있는 이래로 이 네 구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도화원기>에서는 “한나라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니 위나라 진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唐庚은 “말을 지
어낸 것이 간결하고 오묘하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길 “진나라 사람은
말을 만드는 것이 교묘한데 도연명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였다. 진사도
가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도연명의 시를 논하면서, 단지 뜻하지
않게 치우쳐 보았다. 그러므로 소식이나 황정견 등과 달랐을 따름이다.(陳
後山曰·“陶淵明之詩, 切於事情, 但不文耳.” 此言非也. 如<歸園田居>云·
“曖曖遠人村, 依依墟里煙. 狗吠深巷中, 鷄鳴桑樹顛.” 東坡謂·“如大匠運斤,
無斧鑿痕.” 如<飲酒>其一云·“衰榮無定在, 彼此更共之.” 山谷謂·“類西漢
文字.” 如<飲酒>其五云·“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
偏.” 王荊公謂·“詩人以來, 無此四句.” 又如<桃花源記>云·“不知有漢, 無
論魏晉.” 唐子西¹⁷⁾謂·“造語簡妙.” 復曰·“晉人工造語, 而淵明其尤也.” 後
山非無識者, 其論陶詩, 特見之偶偏, 故異於蘇黃諸公耳.)¹⁸⁾ (都穆, 《南濠詩
話》)

진사도가 “但不文耳”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숨씨 좋은

17) 唐庚(1071~1121), 北宋詩人. 字子西.

18) 丁福保, 《歷代詩話續編》 下, 中華書局, 1983, 1342쪽.

목수가 도끼 자국을 남기지 않고 나무를 다듬는 것에 비유한 蘇軾, 서한의 간결한 문장과 같다는 黃庭堅, 최고의 시구라고 극찬한 王安石과 시어가 간결하고도 오묘하다고 평가한 唐庚의 말 등을 내세웠고, 이들의 견해에 비추어 진사도의 말은 편견이라고 단정하였다. 謝榛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다.

황보식이 말하길, “도연명의 시는 사정에 절실하나 꾸미지 않았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황보식은 도연명을 아는 자가 아니다. 도연명은 가장 성정이 있는데, 만일 수식을 가한 것이 鮑照나 謝靈運과 다르지 않다면, 어찌 우연하게 진정한 정취를 드러내고, 담박하게 지극한 맛을 기탁할 수 있겠는가? 진사도 역시 이러한 평을 하였는데, 무릇 황보식에 근본을 두고 있다.(皇甫湜曰·“陶詩切以事情, 但不文爾.” 湜非知淵明者, 淵明最有性情, 使加藻飾, 無異鮑謝, 何以發真趣於偶爾, 寄至味於澹然? 陳後山亦有是評, 蓋本於湜.)¹⁹⁾ (謝榛, 《四溟詩話》 卷二)

도연명이 시어를 꾸미지 않았다고 평가한 황보식의 말을 부정하고, 포조나 사령운과 같이 자구의 조탁에 얽매이는 수사법으로는 그의 성정을 표현해낼 수 없었기에, 도연명은 그 자신만의 수사법을 운용하여 진취를 드러내고 오묘한 뜻을 기탁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宋 진사도가 唐 황보식의 견해를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許學夷 또한 진사도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도연명의 시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어, 자연스레 글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단지 “끓주림이 나를 내몰았지만”, “서로 사립에 어찌 오래 되어야만 하랴”, “하늘의 도는 깊고 먼데.” 등 두 세 편이 시어가 절박하고 속된 말에 가까울 따름이다. 진사도가 말하기를, “도연명의 시는 사정에 절실하나 꾸미지 않았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어찌 안연지와 사령운의 새김은 꾸민 것이라 하고, 도연명의 자연스러움은 도리어 꾸미지 않은 것

19) 같은 책, 1161쪽.

이라 하는가? 이러한 견해는 소동파나 황정건 등 여러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靖節詩直寫己懷, 自然成文. 中惟“飢來驅我去”²⁰⁾、“相知何必舊”²¹⁾、“天道幽且遠”²²⁾二三篇, 語近質野耳. 陳后山云.. “淵明之詩, 切於事情, 但不文耳.” 豈以顏謝雕刻爲文, 靖節自然, 反爲不文耶? 此見遠出蘇黃諸子下矣.)²³⁾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도연명의 創作態도와 修辭에 대하여 “靖節詩直寫己懷, 自然成文.”이라고 규정한 뒤, <乞食>, <答龐參軍>, <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 등 세 편의 시구를 예로 들어, 그 시어가 질박하고 속된 말에 가깝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진사도가 “切於事情, 但不文耳.”라고 한 것은, 자구의 조탁에 힘쓴 안연지나 사령운의 詩句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도연명이 시구를 꾸미지 않았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진사도의 견해 보다는 소식과 황정건의 견해가 훨씬 낫다고 하였다. 이는 소식이 “그 가슴 속의 오묘함을 쏟아내었을 뿐이다.(寫其胸中之妙爾)”²⁴⁾라고 말한 것과 황정건이 “도연명은 그저 뜻을 기탁하였을 따름이다.(淵明直寄焉耳)”²⁵⁾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허학이는 이와 같은 이유로 明·王世貞의 견해 또한 옳지 않다고 하였다.

혹자는 난정의 여러 시를 도연명의 시와 비교하여 묻는데, 도연명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므로, 도연명이 시를 짓는데 뜻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르기를, “東晉 이후 청담이 성행하여 시가 실로 뛰어난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난정의 여러 시가 겨우 그러하였다. 도연명은 곧 좋아하는 바가 실로 시문에 있었으며, 그 뜻은 단지 가슴 속의 오묘함을

20) 陶淵明, <乞食>.

21) 陶淵明, <答龐參軍>.

22) 陶淵明, <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

23)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155쪽.

24) 陳師道, 《後山詩話》(何文煥, 앞의 책, 182쪽.)

25) 黃庭堅, 《山谷外集(九)·論詩》(《影印文淵閣四庫全書》 1113, 商務印書館, 1988, 442쪽.)

쏟아내려 한 것일 뿐이고, 안연지나 사령운을 본받아 애써 공교함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연명이 시어를 지음이 지극히 공교롭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수식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도연명이 시를 짓는데 전혀 뜻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或問以蘭亭諸詩較靖節，靖節自是當家，然靖節未可謂無意爲詩。曰：“渡江後，以清談勝，而詩實非所長，故蘭亭諸詩僅爾。若靖節則所好實在詩文，而其意但欲寫胸中之妙耳，不欲倣顏謝刻意求工也。故謂靖節造語極工，琢之使無痕迹既非，謂靖節全無意於爲詩亦非也。”)²⁶⁾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玄言詩가 유행하였던 東晉 시기에 도연명은 그 유행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단지 가슴 속에 품은 바를 쏟아내려 하였을 뿐이며, 안연지나 사령운과는 달리 자구를 다듬으려 애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謂靖節造語極工，琢之使無痕迹既非.”라고 하여 王世貞의 말을 부정하였다. 그가 지적한 왕세정의 평어는 다음과 같다.

도연명은 뜻을 기탁함이 조출하고 담박하지만, 그 말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공교로운 자이다. 이에 크게 들어가 구상을 하고 그것을 다듬어 흔적이 없도록 하였을 따름이다. 후인들이 온 힘을 다하여 고심하며 그 모양을 비슷하게 취하여 자연스럽다고 하였으나, 천리나 어긋났다.(淵明托旨沖澹，其造語有極工者，乃大入思來，琢之使無痕迹耳。後人苦一切深沉，取其形似，謂爲自然，謬以千里.)²⁷⁾ (王世貞, 《藝苑卮言》 卷三)

도연명이 자신의 뜻을 큰 덩어리로 구상을 한 뒤, 이를 갈고 다듬어 시에 기탁하였으나 조탁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뜻을 조출하고 담박하게 드러내었다고 말하고, 후인들이 이를 힘써 배우고자 하였지만 까마득히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위에서 왕세정은 “其造語有極工者”라고 하여 도연명이 자구의 조탁에 뛰어났다고 하였다. 또한 “琢之使無痕迹耳”라고 하여 흔적이 남지 않도록

26)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154쪽.

27) 丁福保, 《歷代詩話續編》 中, 中華書局, 1983, 994쪽.

자구를 다듬었다고 평하였다. “使”는 곧 作爲를 뜻한다. 반면, 허학이는 위의 평어에서 “其意但欲寫胸中之妙耳.”라고 하였고, 그 앞의 평어에서는 “靖節詩直寫己懷, 自然成文.”이라고 한 바와 같이, 도연명의 시는 作爲的인 修辭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결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왕세정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이다. 허학이는 또한 “靖節則所好實在詩文.”이라고 하여, 도연명이 시를 짓는 데는 전혀 뜻을 두지 않았다고 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연명 시의 修辭에 대한 明人들의 인식은 宋人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즉 송인들이 도연명 시의 수사가 사령운의 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不文”하다고 평가한 반면, 명인들은 그와 같은 시구를 만들어낸 도연명 특유의 수사법에 주목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도연명의 시에 대한 명인들의 인식은 그의 作詩法을 논의한 평어들에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Ⅲ. 陶淵明 詩의 作詩法에 관한 論議

도연명의 시를 논한 評者들은 예로부터 사령운 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두 시인의 시가 그만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시의 修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謝榛이나 許學夷의 평어가 그 좋은 예이다. 이들은 다른 평어에서도 사령운과 도연명을 비교하며 논지를 펴고 있다.

자연스레 오묘한 것이 으뜸이요, 세밀하고 공교로운 것이 그 다음이다. 이는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나뉠이다. 그것을 배우는 자가 반드시 하나를 오로지 하여 닳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연명만 오로지 하는 자는 잘못하여 깊이가 없고 평이해지며, 사령운만 오로지 하는 자는 잘못하여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게 된다. 뒤라서 능히 도연명과 사령운 사이에 머물러,

그 모습을 바꾸고 그 골격을 바꾸어 먼 후세까지 영원히 남을 수 있겠는가? 두보가 이르길, “어찌하면 도연명과 사령운 같은 솜씨로 구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이 노인도 여전히 어렵게 여겼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自然妙者爲上, 精工者次之, 此着力不着力之分, 學之者不必專一而逼真也. 專於陶者失之淺易, 專於謝者失之餽釘, 孰能處於陶謝之間, 易其貌, 換其骨, 而神存千古? 子美云·“安得思如陶謝手.” 此老猶以爲難, 況其他者乎?)²⁸⁾ (謝榛, 《四溟詩話》 卷四)

도연명 시의 修辭가 자연스레 오묘한데 반하여 사령운의 그것은 세밀하고 공교롭다고 규정하고, 도연명의 시가 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도연명만을 배우다 잘못하면 시어가 깊이가 없고 평이해지며, 사령운만을 배우다 잘못하면 군더더기 말만을 늘어놓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두보 역시도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개탄하였으니, 누구나 본받을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시를 짓는 것이 지혜에서 비롯된 자는 지혜로써 구할 수 있으나, 자연에서 비롯된 자는 쫓아갈 흔적이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사령운을 배운 자는 대체로 서로 비슷하지만, 도연명을 배운 자는 백에 하나도 없다.(作詩出於智力者, 亦可以智力求., 出於自然者, 無跡可求也. 故今人學靈運者多相類, 學靖節者百無一焉.)²⁹⁾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지혜에서 비롯된 사령운의 시는 지혜를 얻어 이를 따를 수 있으나, 자연에서 비롯된 도연명의 시는 쫓아갈 자취조차 없다고 평하였다. 따라서 사령운을 배운 자는 대체로 그와 비슷한 시를 지어냈으나, 도연명의 시를 제대로 배운 자는 아무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唐順之는 沈約과 비교하여 도연명을 평가하였다.

28) 丁福保, 《歷代詩話續編》 下, 中華書局, 1983, 1229쪽.

29)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157쪽.

만약 시로써 비유한다면, 도연명은 일찍이 성률을 따지거나 구문을 다듬지 않았으며, 단지 붓 가는대로 써냈으니, 곧 세상에서 제일가는 좋은 시이다. 왜? 그 본바탕이 뛰어나다. 시가 있는 이래로 성률을 따지고 구문을 다듬는데 가장 힘들게 마음을 써서 가장 엄밀하게 말을 세운 사람은 심약만한 사람이 없다. 일생의 정력을 쏟았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를 읽게 하면, 그저 자잘하게 묶여 있는 것만 보이며, 많은 문장에 결국 한 두 마디의 좋은 말도 일찍이 해낸 적이 없다. 왜? 그 본바탕이 보잘 것 없다. 본바탕이 보잘 것 없으면 문장이 공교로울 수 없다. 하물며 그 본바탕이 아닌 자라면야?(即如以詩爲喻, 陶彭澤未嘗較聲律, 雕句文, 但信手寫出, 便是宇宙間第一等好詩. 何則? 其本色高也. 自有詩以來, 其較聲律, 雕句文, 用心最苦而立說最嚴者, 無如沈約, 苦却一生精力, 使人讀其詩, 祇見其網縛齷齪, 滿卷累牘, 竟不曾道出一兩句好話. 何則? 其本色卑也. 本色卑, 文不能工也, 而況非其本色者哉?)³⁰⁾ (唐順之, <答茅鹿門知縣>)

明代 中葉, 當時의 形式主義 文風에 反발하였던 唐順之의 “文章本色”論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작가의 인품을 강조하였고 작품의 사상과 내용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글은 마땅히 진솔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字句의 彫琢을 배격하였다. 위의 글에서 당순지는 도연명의 修辭를 “信手寫出”이라 규정하고, 이는 “本色” 즉 타고난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구의 조탁에 힘쓴 전형적인 인물로 심약을 내세우고, 아무리 공을 들여 성률을 따지고 구문을 다듬는다고 하여도 “본색”을 타고나지 않으면 도연명과 같이 좋은 시를 써낼 수 없다고 하였다.

王文祿은 曹植, 劉楨, 謝靈運과 江淹 등 六朝의 시인들과 도연명을 비교하여 평하였다.

위진 이후 시가 많았으나 오직 도연명의 시를 칭찬한다. 도연명의 시어는 지나치게 담박하여 조식과 유정의 걸출함이나 사령운과 강엄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뜻을 기탁한 작품이 많으므로 읽는 사람은 탄식하며 속세 밖의 생각을 한다.(魏晉以來, 詩多矣, 獨稱陶詩. 陶辭過淡, 不及曹

30) 같은 책, 161쪽.

劉之雄, 謝江之麗, 然多寓懷之作, 故誦者慨然有塵外之思.)³¹⁾ (王文祿, 《文脈》 卷二)

도연명의 시어가 비록 담박하지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세를 잊고 그와 더불어 은둔의 경지를 누리도록 할 만큼 감동을 주는 까닭에, 六朝의 여타 시인들보다 칭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연명의 시를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추존하고, 후대의 시인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평어는 許學夷의 《詩源辯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연명의 시는 처음 읽으면 그 평이함이 느껴지지만, 그 시를 지으려고 하면 한 마디의 말도 비슷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 재주가 높고 취향이 멀어 그러하며, 처음부터 같고 닮아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靖節詩, 初讀之覺其平易, 及其下筆, 不得一語彷彿, 乃是其才高趣遠使然, 初非琢磨所至也.)³²⁾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도연명의 시는 처음에는 평이하게 보이지만 함부로 흉내 낼 수 있는 시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취향이 남다른 도연명만이 가능한 것이며, 자구의 조탁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도연명의 <의고> 9수는 대체로 비유를 들어 자신의 품은 바를 사실대로 적었고, 결코 모의의 흔적이 없으니, 식견이 뛰어나고 재주에 여유가 있지 않다면, 여기에 이를 수가 없다. 뒷사람으로 도연명을 배운 자들은 그 평담하고 곧은 곳은 겨우 한둘을 얻었으나, 여기에 이르러서는 백에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靖節<擬古>九首, 略借引喻, 而實寫己懷, 絕無模擬之跡, 非其識見超越, 才力有餘, 不克至此. 後人學陶者, 於其平直處, 僅得一二, 至此, 百不得一矣.)³³⁾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31) 같은 책, 151쪽.

32) 같은 책, 154쪽.

33) 같은 책, 157쪽.

<의고>시는 그 제목이 그러하듯 옛 시의 체제를 본떠 짓는 시이다. 그러나 도연명의 <의고>시는 모방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의 품은 뜻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하였다. 아울러 이는 그의 뛰어난 식견과 풍부한 재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후인들이 그 시의 평담함은 간혹 얻었지만 그의 재주와 식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도연명의 시는 평담하고 자연스러운데, 본디 조예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뒷날 배우는 자들이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기풍 또한 경박하였다. 평담함을 배우고자하면 반드시 깨끗하고 호탕함을 따라 그것을 얻어야 이에 비천하고 연약함에 이르지 않을 따름이다. 소식이 조카에게 보낸 글에 이르길, “무릇 시를 지음에 마땅히 기상을 깨끗이 하고 채색을 눈부시게 하고, 오래될수록 성숙되어야 이에 평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파는 시를 지을 때 일찍이 한유를 배웠으나, 만년에 혜주에 기거하며 도연명 시에 和韻하였고, 비로소 같은 부류의 시가 있었다. 지금 사람들이 재력이 약하여 스스로 힘쓸 수 없으니 문득 스스로 도연명에게 의탁하는데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靖節詩, 平淡自然, 本非有所造詣. 但後之學者, 天分不足, 風氣亦漓. 欲學平淡, 必從崢嶸豪蕩得之, 乃不至於卑弱耳. 東坡與姪書云 … “大凡爲文, 當使氣象崢嶸, 采色絢爛, 漸老漸熟, 乃造平淡.” 故東坡爲詩嘗學退之, 晚年寓惠州, 和靖節, 始有相類者. 今人才力綿弱, 不能自礪, 輒自託於靖節, 此非欺人, 適自欺也.)³⁴⁾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위에서 “本非有所造詣”라고 한 것은 앞의 평어에서 “非琢磨所至”라고 한 말과 그 맥락이 같다. 즉, 도연명 시의 평담 시풍은 학습이나 수련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깨끗하고 호탕한 기풍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에 소식의 말과 일을 예로 들어, 그마저도 만년에야 비로소 도연명의 평담을 배워 그의 시에 和韻할 수 있었는데, 보잘 것 없는 재주와 경박한 기풍을 지닌 자들이 자신마저 속인 채 함부로 모방하였다고 질책하였다.

34) 같은 책, 160쪽.

이처럼, 명인들은 도연명의 시가 그의 뛰어난 재능과 식견, 남다른 취향과 기풍 또는 “本色” 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짓고, 학습과 수련을 통하여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도연명의 시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논하였다. 이는 그들이 시화를 저술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學詩法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李東陽이 그 좋은 예이다.

도연명의 시는 질박하고 도타우며 옛 것에 가까워, 읽을수록 더욱 그 묘함이 드러난다. 위응물은 점점 그것을 잃어 평이해졌고, 柳宗元은 곧 정교하게 새김이 지나쳤다. 세상에서 도위라 일컫고 또한 위유라 일컫는데, 단지 대략을 말한 것이다. 도연명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모름지기 위응물과 유종원으로부터 들어가야 이에 바르게 될 따름이다.(陶詩質厚近古, 愈讀而愈見其妙. 韋應物稍失之平易, 柳子厚則過於精刻. 世稱陶韋, 又稱韋柳, 特概言之. 惟謂學陶者, 須自韋柳而入, 乃爲正耳.)³⁵⁾ (李東陽, 《懷麓堂詩話》)

먼저, 도연명 시의 묘미를 말한 뒤, 韋應物과 柳宗元이 그를 배웠으나 결국은 미치지 못하였고 각기 다른 길로 나아갔다고 평하였다. 그렇기에 세인들이 도연명과 위응물 또는 위응물과 유종원을 나란히 일컫는 것은 단지 그 대략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양은 우선 위응물과 유종원을 배운 뒤에 도연명을 배우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결국 위응물의 평이함과 유종원의 정교함을 먼저 배우고 난 뒤,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도연명을 배울 수 있다는 뜻으로, 단계적 학습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도연명의 시가 그만큼 배우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허학이 역시, 도연명 시의 章法이나 句法은 물론 詩語 運用上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언급하여, 그의 《詩源辯體》가 學詩者를 위한 지침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35) 丁福保, 《歷代詩話續編》下, 中華書局, 1983, 1379쪽.

도연명의 사언시는 장법이 비록 풍아에 근본을 두고 있지만, 시어는 스스로에게서 나왔으며, 처음부터 옛 것을 본보기로 삼거나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식견도 없이 고집스레 모방하였지만, 성정은 도리어 막혔다. 도연명은 한 마디도 훔치어 따라하지 않았으니 성정이 넘쳐났다.(陶靖節四言, 章法雖本風雅, 而語自己出, 初不欲範古求工耳, 然他人規規摹倣, 而性情反窒, 靖節無一語盜襲, 而性情溢矣.)³⁶⁾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도연명의 사언시가 장법은 비록 《시경》을 따랐으나 시어는 독창적이며, 이에 그의 성정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고 평하였다.

도연명 시의 구법은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그 뜻이 투철하니, 《맹자》와 같음이 있다. 맹자가 글을 짓는데 전혀 뜻이 없었다고 말하나, 옳지 않다. 맹자가 글을 지으면서 흔적이 없도록 다듬었다고 말하는데, 또한 어찌 죽히 성현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도연명을 논하면 더욱 쉽게 깨닫는다.(靖節詩句法天成而語意透徹, 有似《孟子》一書, 謂孟子全無意爲文, 不可., 謂孟子爲文, 琢之使無痕迹, 又豈足以知聖賢哉! 以此論靖節, 尤易曉也.)³⁷⁾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도연명 시의 구법을 《맹자》에 견주었다. 《맹자》는 그 문체의 규범성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문장 수련의 교범으로 활용되었으며, 동시에 그 설득력 있는 논리가 높이 평가되었던 책이다. 허학이가 도연명의 시를 《맹자》에 견준 까닭은 앞에서 살펴 본 그의 평어들에 이미 드러나 있다. 즉, 자연스럽고 평이하여 담박하게 느껴지는 글 속에 독자를 감동시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말하려 한 것이다.

위와 같이 도연명 시의 장법과 구법을 궁구하여 그 특징을 밝힌 허학이는, 다시 시어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36)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153쪽.

37) 같은 책, 154쪽.

도연명의 시는 모두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었기에 도연명집에는 결코 중복된 말이 없으니, 전원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때로는 평범하고 상투적인 말을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곧 중복되기 쉬우니 도연명을 배운 바가 아니다.(靖節詩皆是寫其所欲言, 故集中並無重複之語, 觀田家諸詩可見. 今或以庸言套語爲自然, 則易於重複矣, 非所以學靖節也.)³⁸⁾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도연명의 시어 특히 전원시의 시어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평범하고 상투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아울러,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쏟아내었으나 중복된 말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도연명의 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뜻을 다하면 곧 그만이었다. 그러므로 도연명집에는 장편이 매우 적으니. 이는 위응물과 유종원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靖節詩不爲冗語, 惟意盡便了, 故集中長篇甚少, 此韋柳所不及也.)³⁹⁾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오직 자신의 뜻을 남김없이 쏟아내려 했을 뿐이며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연명에게는 장편의 시가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도연명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당의 위응물과 유종원도 이 점을 본받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허학이는 또한, 도연명 당시에 허황되고 실속 없는 말을 늘어놓았던 玄言詩가 유행하였고, 도연명 역시 老莊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시에는 현언시와 같은 시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진나라 사람은 현묘한 이치를 귀하게 여기고, 황로를 숭상하였으므로, 그 말이 모두 허황되고 실속이 없다. 도연명의 식견과 취향은 비록 노자와 비슷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는 현묘하고 허황된 말이 없다.(晉人貴玄虛,

38) 같은 책, 156쪽.

39) 같은 책, 156쪽.

尙黃老, 故其言皆放誕無實. 陶靖節見趣雖亦有類老子, 而其詩無玄虛放誕之語.)⁴⁰⁾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이상에서 살펴본 도연명의 시어에 관한 허학이의 견해는 다음의 평어에 그 大綱이 담겨 있다.

도연명 시에 미칠 수 없는 것은, 하나는 자신이 품은 뜻을 그대로 적었고 자구를 다듬지 않았으므로 그 시어가 원만하며 기가 충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치에 밝고 세상일을 원히 꿰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그 시어는 간결하나 뜻은 다했다는 것이다. 소명태자가 많이 수록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구나!(靖節詩不可及者, 有一等直寫己懷, 不事雕飾, 故其語圓而氣足., 有一等見得道理精明, 世事透徹, 故其語簡而意盡. 昭明不能多錄, 惜哉!)⁴¹⁾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허학이는 도연명 시어의 특징을 원만하면서도 기가 충족하다는 것과 간결하지만 뜻을 다했다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아울러 이 같은 시어가 그의 창작태도와 식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평어들에서도 도연명의 뛰어난 재능, 탁월한 식견과 남다른 취향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자구의 조탁이 없이 그대로 쏟아내는 창작태도를 반복하여 칭송하며, 이들을 도연명 시의 성공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없는 바라고 주장하였다. 唐順之가 말한 “本色”은 허학이가 말한 재능, 식견, 취향 그리고 창작태도 등을 아우른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IV. 陶淵明 詩의 文體에 관한 論議

도연명의 시를 논함에 있어, 명시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의 體制

40) 같은 책, 158-159쪽.

41) 같은 책, 156쪽.

즉 文體에 대하여 평하였다는 것이다. 許學夷의 《詩源辯體》를 보자.

오언시는 한과 위로부터 육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흘러나왔고, 그 체제가 점차 이어졌다. 오직 도연명만이 옛 체제를 본받지 않았으며, 새로운 시어를 배우지 않았으니, 진솔하고 자연스러워 곧 스스로 하나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미 당대 시체의 徵兆를 보였다.(五言自漢魏至六朝, 皆一源流出, 而其體漸降. 惟陶靖節不宗古體, 不習新語, 而眞率自然, 則自爲一源也, 然已兆唐體矣.)⁴²⁾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한에서 육조에 이르기까지 五言詩의 詩體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도연명이 이를 변화시켜 독자적인 시체를 만들어내었으며, 당대 시체의 징조를 보였다고 평하였다. 한에서 당에 이르는 오언시의 흐름을 살핀 뒤, 명인들이 詩法으로 받들었던 唐의 詩體가 도연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허학이가 말한 새로운 시어란 앞에서 살펴본 평어에 비추어 볼 때, 현언시의 시어를 말한다.

사령운의 시는 위로 한과 위 그리고 태강 연간을 이어받아 그 맥락이 바른듯하지만, 문체가 깨어져서 거의 본받을 만하지 않다. 도연명의 시는 진솔하고 자연스러워 스스로 하나의 근원이 되었으니 비록 약간 치우친 듯 하지만 문체가 완전하고 순수하여 실로 취할 만하다. 사령운은 우리 유가인 荀子와 楊雄에 비유되고, 도연명은 공자 문하에서 백이를 보는 것과 같다.(康樂詩上承漢魏太康, 其脈似正, 而文體破碎, 殆非可法. 靖節詩眞率自然, 自爲一源, 雖若小偏, 而文體完純, 實有可取. 康樂譬吾儒之有荀揚, 靖節猶孔門視伯夷也.)⁴³⁾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예로부터 전해오던 文體가 사령운에 의하여 깨어졌으며, 도연명이 완전한 문체를 만들어 하나의 근원을 이루었다고 평하고, 도연명을 백이에 비유하였다. 何景明 역시 위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42) 주 4)와 같음.

43)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153쪽.

시는 도연명에서 쇠약해졌고, 사령운이 힘써 진작시켰으나, 고시의 법은 사령운에서 망하였다.(詩弱于陶, 謝力振之, 然古詩之法亦亡于謝.)⁴⁴⁾ (何景明, <與李空同論詩書>)

도연명과 사령운을 단순 비교한 송인들과는 달리, 위의 평어에서 보듯이 명인들은 通時的 觀點에서 두 사람의 詩史上 지위를 논하였다. 허학이는 나아가, 도연명이 當時 詩壇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氣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군가 “한과 위 그리고 도연명의 시가 모두 감정의 진실함에 근본을 두고 있는데, 그 시체가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었다. 이르길, “한 위는 옛것에 가까워 흥에 기탁함이 심하므로 그 시체가 완곡하다. 도연명은 옛것으로부터 점차 멀어졌고 다만 자신의 품은 뜻을 그대로 적었으니, 응당 기를 위주로 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문슬신어》에 이르길, “문장은 기를 위주로 하니, 기운이 부족하면 비록 화려한 문체가 있더라도 대체로 훌륭한 작품이 아니다. 어제 도연명의 시를 읽었더니 매우 활기가 없고 담박했지만 맛이 있었다.”라고 하였다.(或問·“漢魏與靖節詩皆本乎情之眞, 而體有不同, 何也?” 曰·“漢魏近古, 興寄深, 故其體委婉. 靖節去古漸遠, 直是直寫己懷, 固當以氣爲主耳.” 《捫蝨新語》云·“文章以氣爲主, 氣韻不足, 雖有辭藻, 要非佳作也. 昨讀淵明詩, 頗似枯淡而有味.”)⁴⁵⁾ (許學夷, 《詩源辯體》 卷六)

옛 시체에 가까우며 감정에 기탁함이 심하여 완곡했던 漢과 魏의 시체에 비하여, 도연명의 시체는 옛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氣를 위주로 하였다고 평가하고, 南宋의 陳善이 《捫蝨新語》에서 문장은 기를 위주로 해야 하며, 도연명의 시가 그러하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도연명이 六朝의 시체와는 달리 새로운 시체를 만들었다고 말한 허학이는, 다시 도연명의 시체를 韓愈 등의 시체와 비교하여 논하였다.

44) 같은 책, 136쪽.

45) 같은 책, 156쪽.

누가 나에게 묻기를, “그대는 일찍이 원화 연간의 여러 사람들이 의론으로 시를 지었고, 그리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도연명의 ‘자연의 조화는 사사로움이 없고’, ‘顔回는 어질다고 일컬어지고’ 등의 시편은, 또한 자못 의론을 다루었으니, 원화 연간의 여러 사람들과 어찌 다른가?”라고 하였다. 이르길, “도연명의 시야말로 이치를 터득한 말이며, 대체로 자연으로부터 나왔고, 지혜로써 얻은 것이 아니며, 원화 연간의 사람들이 총명함을 내세우고 뛰어난 기교를 엮어서, 모두 산문으로 시를 지은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或問予.. “子嘗言元和諸公以議論爲詩, 故爲大變, 若靖節‘大鈞無私力’⁴⁶⁾、‘顔生稱爲仁’⁴⁷⁾等篇, 亦頗涉議論, 與元和諸公寧有異耶?” 曰.. “靖節詩乃是見理之言, 蓋出於自然, 而非以智力得之, 非若元和6諸公騁聰明, 構奇巧, 而皆以文爲詩也.”)⁴⁸⁾ (許學夷, 《詩源辯體》卷六)

“以文爲詩”는 후대에 韓愈의 시를 논하면서 비롯된 말이다. 즉 宋의 陳師道는 “한유는 산문으로 시를 지었고, 소식은 시로써 시를 지었다.(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⁴⁹⁾라고 하였고, 淸의 趙翼은 “산문으로 시를 지은 것은 한유에게서 시작되었다. 소식에 이르러 그 詞에 더욱 크게 퍼졌으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 한 시대의 큰 볼거리가 되었다.(以文爲詩, 自昌黎始. 至東坡益大放厥詞, 別開生面, 成一代之大觀.)”⁵⁰⁾라고 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以文爲詩”란, 韓愈, 元稹 그리고 白居易 등 中唐 元和 年間の 시인들로부터 비롯되어 北宋의 蘇軾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作詩法을 일컫는 것이다. 즉 산문의 字法, 句法, 章法과 표현 기교 등을 활용하여 시를 짓는 것이며, 그 내용은 議論을 위주로 하였다. 허학이는 도연명의 경우에도 의론을 다룬 시가 있으나, 당송의 시인들과 같이 “以文爲詩”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6) 陶淵明, <神釋>.

47) 陶淵明, <飲酒> 其十一.

48)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앞의 책, 156쪽.

49) 陳師道, 《後山詩話》(何文煥, 앞의 책, 185쪽.)

50) 趙翼 著 霍松林·胡主佑 校點, 《甌北詩話》五, 人民文學出版社, 1998, 56쪽.

위의 평어에서 비록 허학이는 도연명이 “이문위시”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였으나, 글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미 도연명의 시를 한유의 시에 견주어 “이문위시”하였다고 평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錢鍾書는 “通文於詩”라는 말로 도연명 시의 산문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당 이전에 오직 도연명만이 시에 산문을 통하게 하여, 그 실마리를 약간 끌어다가, 소박하지만 두텁게 두루 사용하여, 새로운 풍격을 열었다.(唐以前惟陶淵明通文於詩, 稍引厥緒, 朴茂流轉, 別開風格.)⁵¹⁾

도연명이 새로운 풍격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전중서가 말한 “通文於詩”는, 곧 약간의 산문적 요소들을 시에 끌어들이어 산문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배어들도록 시를 지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중서는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⁵²⁾과 “倒裳往自開, 問子爲誰歟.”⁵³⁾ 등의 시구를 “通文於詩”의 예로 들었다. 아울러, “之”자를 대명사로 사용한 시인은 극히 적다고 하면서 “微雨從東來, 好風與之俱.”⁵⁴⁾와 “過門更相呼, 有酒斟酌之.”⁵⁵⁾ 등의 시구를 그 예로 들었다.⁵⁶⁾

朱自清 역시, 도연명 시의 문체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산문화된 필치를 사용하였으나, 도리어 《도덕론》과는 달리 자연에 합치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매우 뛰어나다. 이는 그의 철학과 일치한다. “마을에 오두막을 지었는데, 수레나 말의 시끄러움이 없네”와 “인생이 귀의하는데 정해진 이치가 있으니, 입고 먹는 것이 그 근본이다. 뉘라서 이것조차 도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일을 구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시구는 모두 종전의 시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구법이다. 비록 그는 결코 아무

51)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86, 73쪽.

52) 陶淵明, <飲酒> 其五.

53) 陶淵明, <飲酒> 其九.

54) 陶淵明, <讀山海經> 其一.

55) 陶淵明, <移居> 其二.

56) 주 51)과 같음.

런 구법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지만.(他用散文化的筆調, 卻能不像《道德論》而合乎自然, 才是特長. 這與他的哲學一致. 像“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人生歸有道, 衣食固其端. 孰是都不營, 而以求自安.”, 都是從前詩裏不曾有過的句法; 雖然他是並不講什麼句法的.)⁵⁷⁾

도연명이 산문화된 문체를 사용하였으나 莊子の 《도덕론》과는 달리 그 문체가 자연스럽다고 하였고, 이것은 그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飲酒>其五와 <庚戌歲九月中於西田穫早稻>의 시구를 예로 들어 종전에 없던 句法이라고 하였다. 도연명의 철학에 견주어 시의 문체를 말한 것은, 운문으로서의 시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시를 지은 도연명의 창작태도와 방법이 세속의 굴레에 얽매이려 하지 않았던 그의 철학과 일치함을 말한 것이다.

高建新은 <“以文爲詩”始于陶淵明>⁵⁸⁾에서, “以文爲詩”란 산문의 문장 구조와 句法 및 虛詞와 虛字를 사용하여 시를 지음으로써, 시를 산문과 같이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통쾌하고 유창하게 敘事와 抒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이 도연명의 시 가운데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문위시”를 도연명 시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면서, “이문위시”는 한유가 아닌 도연명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고건신의 주장에 대하여, 張明華와 魏宏燦은 <“以文爲詩”不始于陶淵明>⁵⁹⁾에서, 도연명은 議論을 위주로 한 玄言詩의 산문적 성격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한 반면, 한유 등은 도리어 산문을 시에 끌어들이는 것이며, 이들의 “이문위시”는 古文運動의 副産物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연명의 경우는 “以文爲詩”가 아니라 “以詩爲詩”라고 규정하고 고건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장명화와 위굉찬 역시 도연명의 시가 산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57) 朱自清, 《朱自清古典文學論集》 下, 上海古籍出版社, 1981, 571쪽.

58)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4:4, 2002.

59) 《淮南師範學院學報》 2, 2004.

고건신은 다시, <再論“以文爲詩”始于陶淵明>⁶⁰⁾에서, 도연명의 “이문위시”는 창작 방법의 문제이며 시가의 예술 표현 수법이라고 전제하고, “이문위시”가 고문운동의 부산물이므로 도연명의 시는 “이문위시”라고 할 수 없다는 장명화와 위굉찬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 뒤, 韓國良은 <對陶淵明“以文爲詩”的再認識>⁶¹⁾에서, 도연명이 언어와 문자는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魏晉 玄學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시어의 수사와 형식 기교를 “淡化”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뜻은 두드러지게 드러내었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唐宋人들이 “이문위시”한 목적은 시가의 표현 영역을 개척하고 시의 사회적 효능을 제고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도연명의 “이문위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연명의 시는 단지 虛字와 虛詞로 구성된 산문의 구법으로 시를 지은 것이며, 당송의 문인들은 이를 한결음 더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문의 체제로 시를 지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연명의 시는 매우 선명한 산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介詞, 連詞와 語助詞를 즐겨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연명이 “이문위시”하였느냐 아니냐의 논의는 결국 “이문위시”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는 본 논문의 논지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전중서와 주자청은 물론, 허자의 사용만을 지적하며 산문적 요소를 지녔다고 보는 장명화와 위굉찬의 견해로부터, 문장 구조마저 산문적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산문적 특징이 도연명의 시가 성공을 거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 고건신의 견해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도연명이 산문적 요소와 체제를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다.

60)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7:6, 2005.

61) 《中州學刊》 4, 2010.

V. 맺음말

唐詩 특히 盛唐의 시를 詩法으로 삼았던 明人들은 도연명의 시가 唐詩의 徵兆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도연명 시의 造句法과 造字法 등 作詩法에 주목하였고, 宋詩話에 비하여 체계화되고 이론화되어 전문적인 詩歌 批評書의 모습을 갖추었던 明詩話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明人들은 宋人들이 도연명의 시가 平淡하다고 평가한 것에는 동감하였다. 그러나, 송인들이 도연명은 의도적으로 자구를 다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不文” 또는 “不煩繩削而自合”이라고 말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도연명은 가슴 속에 품은 뜻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려고 하였을 뿐이며 그 결과 자연스레 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를 “信手寫出”, “自然成文” 등으로 표현하였다.

명인들은 또한, 도연명의 시가 비록 평담하고 자연스럽지만, 학습이나 수련을 통하여 쉽게 배울 수는 없다고 단정하고, 杜甫가 도연명의 시를 배우기 어렵다고 탄식한 것과 蘇軾이 만년에야 비로소 도연명 시에 和韻한 일 등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송인들이 도연명을 가장 잘 본받았다고 평가한 韋應物이나 柳宗元도 도연명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명인들은 도연명의 시가 그의 풍부한 재주, 뛰어난 식견, 남다른 취향 또는 “本色”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學詩法을 제시하고자 詩話를 저술한 명인들은 도연명의 시에 대한 학습방법 역시 제시하였다. 李東陽이 《懷麓堂詩話》에서 위응물 시의 평이함과 유종원 시의 정교함을 먼저 배운 뒤에 도연명의 시를 배우라고 하여, 단계적 학습법을 제시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許學夷 또한 《詩源辯體》에서 도연명 시의 章法이나 句法은 물론 詩語 運用上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언급하여, 學詩者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도연명의 시를 논함에 있어 명시화의 특징 가운데 다른 하나는 시의 體制 즉 文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許學夷는 그의 《詩源辯體》

에서, 여러 條目的 評어를 통하여 도연명이 새로운 詩體를 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새로운 시체란, 첫째, 예로부터 전해오던 시체를 본받지 않았으며, 둘째, 六朝 여타 시인들의 시와는 다른 시체이고, 셋째, 玄言詩의 시어를 답습하지 않았으며, 넷째, 문체가 완전하고 순수하며, 다섯째, 문장이 氣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담박하지만 맛이 있고, 여섯째, 議論을 다루었으나 韓愈 등의 “以文爲詩”한 시와는 다르다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錢鍾書가 “通文於詩”라고 지적한 이후, 학자들은 도연명 시의 산문적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비록 허학이가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도연명 시의 문체를 논의한 평어들을 분석하여 보면, 그 역시 도연명 시의 산문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가 도연명 시의 句法을 논하면서 “有似《孟子》一書”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추론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參考文獻 >

- 陶澍, 《陶靖節全集注》, 世界書局, 1974.
 이치수, 《도연명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何文煥, 《歷代詩話》, 藝文印書館, 1974.
 丁福保, 《歷代詩話續編》(上,中,下), 中華書局, 1983.
 丁福保, 《清詩話》(上,下), 上海古籍出版社, 1978.
 黃庭堅, 《豫章先生文集》, 《四部叢刊影印本》 49, 法仁文化社, 1989.
 黃庭堅, 《山谷外集》, 《影印文淵閣四庫全書》 1113, 商務印書館, 1988.
 趙翼 著 霍松林·胡主佑 校點, 《甌北詩話》, 人民文學出版社, 1998.
 北京大學北京師範大學中文系, 《陶淵明資料彙編》 上, 中華書局, 2004.
 郭紹虞, 《宋詩話考》, 中華書局, 1985.
 錢鍾書, 《談藝錄》, 中華書局, 1986.
 蔡鎮楚, 《中國詩話史》, 湖南文藝出版社, 1988.

- 朱自清,《朱自清古典文學論集》下,上海古籍出版社,1981.
- 高建新,〈“以文爲詩”始于陶淵明〉,《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4:4, 2002.
- 張明華·魏宏燦,〈“以文爲詩”不始于陶淵明〉,《淮南師範學院學報》2, 2004.
- 高建新,〈再論“以文爲詩”始于陶淵明〉,《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7:6, 2005.
- 韓國良,〈對陶淵明“以文爲詩”的再認識〉,《中州學刊》4, 2010.
- 崔雄赫,〈宋人 詩話의 陶淵明과 그의 詩에 관한 評語 研究〉,《中國學研究》57, 2011.

<中文提要>

明代文人认识以唐诗尤其盛唐诗为诗法,以及陶渊明诗有兆唐诗体.所以他们关注了陶诗的修辞、造句和用字等作诗法,在他们的诗话里有重点地进行讨论了这些.

明人承袭了宋人认为陶诗有平淡的风格.然而他们否认,宋人用以“不文”和“不绳削”等概括的评语来裁断陶诗的修辞.反而,他们认为陶渊明只有直写其怀,信手写出,自然成文.还有,明人认为在初读陶诗时,读者觉得其淡泊平易,但是及其拟作陶诗,不得一语彷彿,所以后代诗人可学陶诗者,是千里挑一.他们摘取了丰富的才能、卓越的识见和独特的气风(是可以归结为唐顺之所谓的“本色”),是陶诗的成功要因.

明人着作诗话的目的,是为了给初学者提供学诗的方法,振作创作活动.所以他们也提示了对于陶诗的学习方法.李东阳提示了首先学习韦应物诗之平易和柳宗元诗之精巧,然后学习陶渊明诗之平淡的学诗方法.还有许学夷从各个角度論评陶诗的章法、句法以及修辞方法,来提示了一种学诗指南.

明人还评价了陶诗的文体,是引人注目的.许学夷评价了陶渊明不宗古体,不习当时之玄言诗语,别开新体,自为一源.详细地分析他的这些评语,

虽然他不明细地摘示了, 但是我们可以推想到他一直讲究着陶诗之散文似的气脉.

주제어 : 明诗话, 陶渊明, 创作态度, 作诗法, 文体, 以文为诗

